

10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싱가포르]

1.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 싱가포르 달러)

품목	'11.1~9	'12.1~9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딸기	21,012	21,563	2.62	미국	9,910	한국	8,574	호주	1,987	8,574
사과	55,608	60,731	9.21	중국	21,623	뉴질랜드	13,817	남아공	13,650	124
단감	-	3,594	-	남아공	1,165	뉴질랜드	950	호주	697	100
배	-	16,047	-	중국	10,886	남아공	3,530	아르헨티나	902	8
인삼	11,320	9,262	△18.18	한국	2,862	캐나다	2,707	중국	1,593	2,862
커피조제품	102,617	102,594	△0.02	말련	48,430	인니	13,011	브라질	9,919	2,196
맥주	115,526	125,490	8.62	말련	39,360	네덜란드	15,535	인도	12,391	6,373
라면	28,407	28,827	1.48	말련	10,152	중국	5,720	태국	3,700	2,205
음료	152,036	176,144	15.86	말련	94,083	태국	19,916	호주	10,203	917
김	4,528	4,999	10.40	한국	2,065	중국	1,358	일본	817	2,065

자료 : IE Singapore Statlink 수출입통계자료 (9월 기준 자료)

- 신규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진행 중으로 배,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 주류, 라면, 음료 등의 가공 식품의 성장과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판매가 증대가 기대됨
- 현지 생산 조미 김의 한국산 원재료 수요증가 및 한국산 조미김 완제품 수입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라면은 기존 제품과 더불어 신제품(하얀 국물 상품)이 대거 싱가포르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판매 확대 중에 있음.
- 맥주는 대형유통업체 PB 상품 및 동남아 재수출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삼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줄었으나 가디언, 왓슨 등 편의매장 내 한국인삼 전용 매대 운영 증가로 인한 신규 판로 확대에 향후 소비확대 전망
- 단감, 사과, 딸기는 주요 수출 시즌인 10월 이후 다양한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 이슈현안 : 맥킨지보고서의 인도네시아 전망 보고

□ 개요

- 2012년 9월 18일에 미국의 맥킨지 연구소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 이르러서는 독일, 영국을 추월하여,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등에 이은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 (제목 : “The Archipelago Economy : Unleashing Indonesia's Potential”)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일으켰음.
- 인접 ASEAN국가들의 통신들은 부러움을 표시하는 가운데, 서양의 통신들은 맥킨지보고서가 전망치에 불과하다며 ; 인도네시아가 해당의 금빛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맥킨지보고서의 내용

- 맥킨지보고서는 - 아시아들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 인도네시아가 GDP의 2/3을 내수시장에서 발생시키는 내수주도형 경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향후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며, 2030년까지 USD 1.8조의 추가적인 경제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함.
- 맥킨지보고서는 자사 전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를 제시함.

	전 제 내 용	관련 출처
1	OECD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 변동성 (volatility) 수출의존도가 30%대에 불과한 내수주도형 경제	OECD
2	활동적 소비자층의 증가 (2010년:4.5천만 → 2030년:13.5 ~ 17.0천만)	인도네시아 통계청 맥킨지 CSI
3	노동력의 증가 (인구 2010년:2.4억 → 2030년: 2.8억, 이중 70%가 15-64세 사이의 근로계층)	인도네시아 통계청

- 맥킨지보고서는 총 1.8조의 추가적인 경제기회를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들을 지목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1) 생산성 향상, (2) 서비스품질의 향상, (3) 사회기간망의 확충, (4) 투명성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함.

항 목	연평균 성장율	시장 전망
소비/서비스 부문	7.7%	USD 1.07 조
농림/수산 부문	6.0%	USD 0.45 조
자원 부문	7.0%	USD 0.27 조
사교육 부문	7.2%	USD 0.04 조

□ 농식품 및 유통 부문 전망

- 인구의 증가, 노동력의 증가, 소비계층의 증가 등은 농식품부문 및 유통부문에 다음과 같은 경제기회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이 됨.

항 목	분 야	내 용		
농식품 부문	생 산	2030년 전망 : USD 2,500 억		
	식 음 료	2030년 전망 : USD 1,800 억		
	농기계/비료/종자	2030년 전망 : USD 200 억		
유통 부문	유통시장의 분권화		GDP 점유율	
			2010	2030
		자카르타	19.0%	19.0%
		중형 도시	17.0%	26.0%
		소형 도시	38.0%	40.0%
		농 촌	26.0%	14.0%
	식음료 시장	2030년 전망 : USD 212 억		
	외식업 시장	2030년 전망 : USD 300 억		
	현대적 유통점	점유율 2011년: 38% → 2030년: 50% 이상		

□ 인도네시아의 행보

- 맥킨지 보고서에 이어, 10월 3일 발표된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에서 세계무역의 침체 속에 내수주도형경제의 국가들 약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10월 23일 발표된 World Bank/IFC의 2013년 기업환경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기업관련 9개 분야, 18개 규제법안 부문에서 개혁을 달성하여 기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여 맥킨지 보고서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행보들을 보이고 있음.

(2012.10.24 현재)

제 목	목 적	출 처
30여년 숙원사업인 자카르타 도시철도사업 재상정	사회기간망 확충	ASEAN Affairs
일본으로부터 도시철도 이외 기간망구축 등의 차관 USD 430억 도입발표		Jakarta Post
토지취득 법안완화를 위한 재심의		ASEAN Affairs
편법 인가된 미니마트/CVS (편의점) 단속	유통부문 개선	Kati, ANN
프랜차이즈 법안 개정 심의		ANN
경쟁력 저해 법안 824건 폐지		Antara
상공회의소 (Kadin) 미국 AID와 식량증대에 관한 MoU 체결 (농경장비차관 및 수확보험)	농업부문 생산력향상	Jakarta Post
무역부, 미국 EPA 초청 및 팜유 green표준 실사	농업부문 경쟁력향상	Jakarta Post Reuters
Food Law 개정안 국회통화 (신규 정부부서 설립 :농림, 수산 장기계획 및 식품수출입 인허가)	수출입 인허가 업무 효율화	Jakarta Post Jakarta Globe
대형유통업체 Matahari 서점,레스토랑,토지 등의 사업부문 매각발표	유통부문 집중	Jakarta Post

※주 :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미니마트업계는 토종기업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계인 7-Eleven (일본)은 편의점사업인가를 위해서 국내자본점유비율이 요구되자 레스토랑업으로 편법등록을 하였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7-Eleven은 1층 편의점 및 2층 식당가의 독특한 구조로 운영이 됨.

- 프랜차이즈법안의 개정심의에 착수한 것은, 프랜차이즈시장 개방에 앞서 외국계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며 ; 7-Eleven을 지목한 편법편의점의 단속은 편법이라는 점 이외에 미니마트/편의점 업체들이 골목상권 (재래시장)의 보호에 더욱 유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토지취득완화 등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현대화 및 지방상권확보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정부가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됨.

(자료원: McKinsey Global Institute, ANN, ASEAN Affairs, Jakarta Globe, Business Times, Fox Business, CNBC, Reuters, Jakarta Post, Antara News)

3. 품목 동향 : 베트남 커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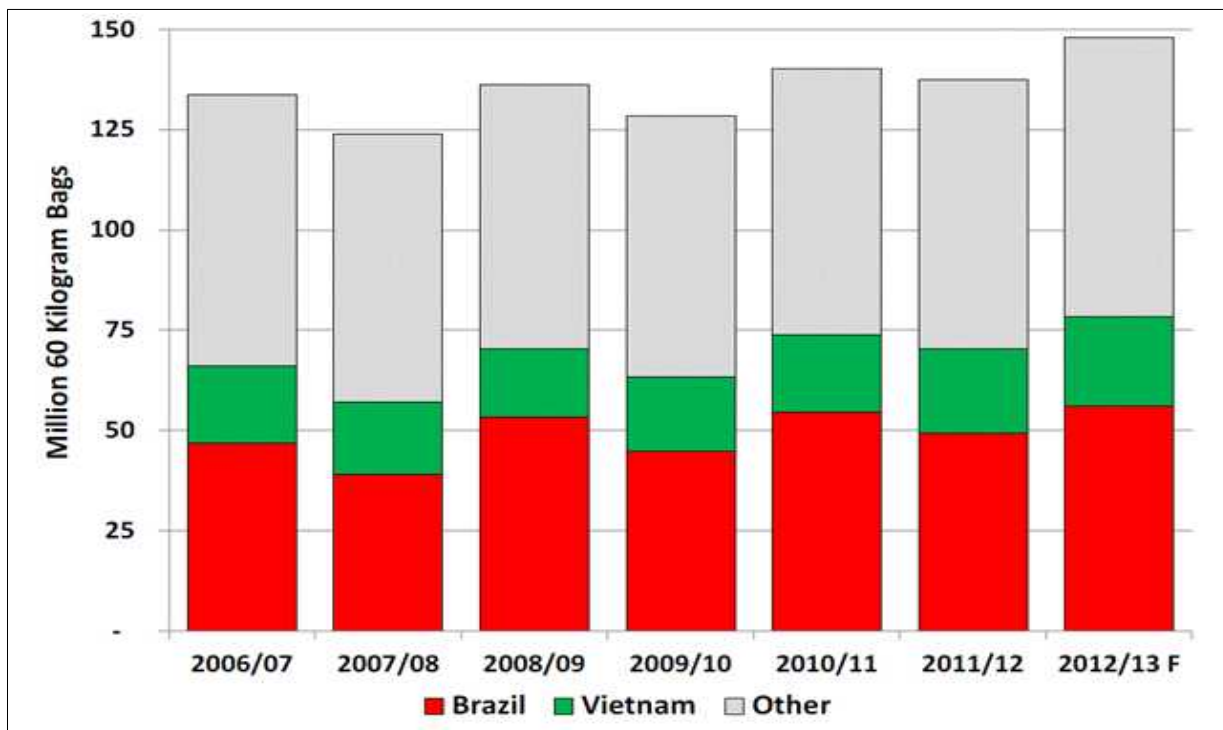
□ 개요

- 베트남의 커피산업은 1980년대의 doi moi (경제개혁) 정책에 간접적으로 힘입어, 미미했던 커피생산량이 현재는 브라질에 이은 세계 2위의 생산량 및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 베트남의 커피수출은 쌀에 이어 2위의 주요 수출작물을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주요 품종은 맛이 강한 robusta품종으로,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커피믹스 혹은 커피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자체적인 유명 브랜드가 부재하여 크게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순한맛 위주로 시장공략을 추진해왔었으나 ; 대표적인 커피체인점인 Starbucks가 3년간의 시장조사 끝에 2012년부터 베트남 입맛에 맞춘 제품을 표방하며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어, 향후 베트남 내수시장 커피소비량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 현황 및 세계 커피시장에서의 베트남

- 1857년 프랑스 식민지시대에 커피를 처음 접한 베트남은, 1980년에 재배면적 22,500 ha, 생산량 8,400톤 (세계생산의 0.1%) 에서, 2011년 재배면적 550,000 ha, 생산량 120만톤 (세계생산의 14%) 을 상회하며 ; 베트남의 주요 수출작물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특기사항으로, 베트남의 커피산업은 1980년대의 doi moi (경제개혁)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발전된 것이 아니라 ; 친-서방의 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본부: 영국) 가 아닌 ICO 비회원국가이며 우호국가인 베트남에서 커피를 수급하려는 소련 및 동유럽의 기술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임.
- 미국 USDA의 커피시장 보고서에도 주요 도표는 1위 브라질, 2위 베트남, 그리고 기타로 표시가 되며, 국제커피시장에서의 베트남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경우 Robusta품종이 97%를 점유하고 있어, 다른 품종의 커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임.

<세계 커피 생산량>



(출처 : 미국 USDA)

<세계 10대 커피 생산국가>

(단위 : 60Kg/Bag)

	전 체		Arabica		Robusta	
1	브 라 질	54,500	브 라 질	41,800	베 트 남	18,150
2	베 트 남	18,725	콜롬비아	9,500	브 라 질	12,700
3	콜롬비아	9,500	에티오피아	4,400	인도네시아	7,950
4	인도네시아	9,325	온두라스	4,000	인 도	3,600
5	인 도	5,100	페 루	4,000	코트디와르	2,100
6	에티오피아	4,400	과테말라	3,900	우 간 다	1,900
7	온두라스	4,000	멕시코	3,500	말레시아	1,000
8	페 루	4,000	니카라과	2,000	태 국	900
9	과테말라	3,910	엘살바도르	1,700	카 메 룬	525
10	멕시코	3,700	코스타리카	1,575	토 고	525

(출처 : Bloomberg)

□ 내수 현황 및 향후 전망

- 베트남의 내수 커피시장은 순한맛 보다는 강력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특성으로 베트남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단, 베트남 시장특성에 맞추어 2년여의 연구 끝에 2008년에 Cafe Viet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Nescafe가 강력한 2위를 유지하고 있음.

<베트남 커피시장 점유율 변화>

업 체	브 랜 드	2007	2008	2009
Vietnam Dairy	Vinacafe	47.3	47.2	47.1
Nestle	Nescafe	30.3	30.5	30.7
Trung Nguyen	Trung Nguyen	5.0	5.2	5.3
Kraft	Maxim	5.2	5.2	5.3
Kruger	Kruger	1.8	1.8	1.8
Duncan	Duncan	1.3	1.3	1.3
Tonkin	Tonkin	0.2	0.2	0.2
기 타		8.9	8.6	8.3

(출처 : Datamonitor)

- 베트남의 커피시장은 2012년까지의 4%대의 완만한 성장세에서, 2013년부터는 8%의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베트남인들이 다른 커피생산국가 그리고 커피 선호국가 등에 비해 여전히 일인당 소비량이 현저히 낮아, 커피소비시장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이며 ; 둘째,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기업들도 베트남인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트렌드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임.

<베트남의 커피시장 통계 및 전망>

(단위 : USD, 백만)

2010	2011	2012	2013	2014
420.9	436.6	452.3	491.6	534.4

(출처 : Datamonitor, Euromonitor 종합)

<국가별 일인당 커피소비량>

(단위 : Kg)

순 위	국 가	소비량	순 위	국 가	소비량
1	핀 랜 드	12.0	15	독 일	5.5
2	노르웨이	9.9	16	그 리 스	5.5
3	아이스랜드	9.0	17	프 랑 스	5.4
4	덴 마 크	8.7	18	크로아티아	5.1
5	네덜란드	8.4	19	키프로스	4.9
6	스 웨 덴	8.2	22	스 페 인	4.5
7	스 위 스	7.9	25	미 국	4.2
8	벨 기 에	6.8	32	코스타리카	3.8
9	캐 나 다	6.5	34	뉴질랜드	3.7
10	보스니아	6.2	39	일 본	3.3
11	오스트리아	6.1	54	대한민국	1.8
12	이 태 리	5.9	56	콜롬비아	1.8
13	슬로베니아	5.8	56	러 시 아	1.7
14	브 라 질	5.8	89	베 트 남	0.7

(출처 : World Resources Institute)

□ 베트남의 커피관련 사진

선호 커피 제품	Nescafe (Cafe Viet) 믹스 	Trung Nguyen Gourmet 믹스 
선호 커피점 체인	Highlands Coffee (Viet Thai사) 	Trung Nguyen (Trung Nguyen사) 
베트남 커피소비형태	Drip Coffee (Cafe sua da) 	Drip Coffee with Ice 

(자료원: World Bank, VNN, VNX, USDA, UNCTAD, The Economist, Euromonitor, Datamonitor, Bloomberg,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AFDB, World Resources Institute)

“<저작권자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